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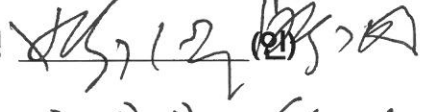



2019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공모
심의 총평

심사위원 서명 박유미  (인)

서명 김영희  (인)

서명 김상민  (인)

2019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심의위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순번	성명	소속/직위
1	박유미	잔피 팀원
2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부장
3	임상빈	잔피 대표

2019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공모 심의 총평

○ 2019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공모 A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기획공모 A형은 경력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이다. 올해 정기공모에서는 두 개의 단체가 지원하였는데, 로봇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빛과 소리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학교가 지원하였다. 이 두 단체는 모두 과학기술이나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빛과 소리는 물리학자 전문강사를 내세운 과학창의교육의 성격이 더 강하고 행복학교의 경우는 스토리텔링이나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책교육이나 인문학 교육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심화된 내용과 실질적인 교육 과정의 설계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진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19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공모 B형

기획공모 B형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지역의 문학관의 시인과 마임을 결합하거나 지역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아이들의 다양한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접수되었다. 여기서 문화예술이나 인문학은 단순히 도구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전인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의 역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 단체들 중에는 문화예술 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지역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열정을 잃지 않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